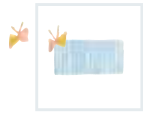


2025년(헤이세이 37년)을 향해
 '사람'을 '보물'로 생각하고
 새로운 풍요로움을 협력하여 창조하는
 '협창'의 도시 실현으로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럴 때는...

▶ 인터넷에서

제 5차 고베시 기본계획

<http://www.city.kobe.lg.jp/keikaku.html>

▶ 창구에서

고베시 기획조정국 종합계획과(계획 전반에 관한 것)
 행정장국 행정경영과(행정장 개혁에 관한 것)

편집·발행 고베시 기획조정과
 (우)650-8570 고베시 주오구 가노초 6-5-1 Tel 078-331-8181(대표)

고베시 홍보인쇄물 등록 2011년도 제 45호(A-1류)

리사이클 적성

이 인쇄물은 인쇄용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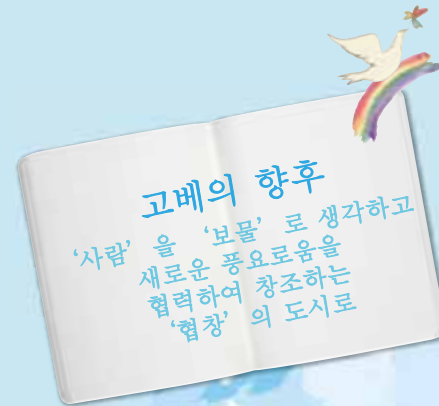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City of Design
KOBE

Member of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since 2008

제 5차 고베시 기본계획의 개요

2025년을 향한 '고베만들기의 지침'
 5년간에 실행할 '고베 2015 비전' 과 '각 구의 계획'



*Message
 from Kobe*



2011년 2월

고베시

앞으로의 도시만들기

고베시에서는 2025년의 도시의 모습을 응시하여 '제 5차 고베시 기본계획'을 책정했습니다. 먼저 계획의 전체상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베의 도시를 한층 더 매력 넘치게 하기 위해



고베시장
야다 다쓰오

저희 고베의 도시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큰 피해를 입은 이래 시민들이 서로 돕고 또, 국내외로부터 많은 따뜻한 지원을 받아 가면서 부흥의 긴 여정을 걸어 왔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한 재해에 대해 피재지로서의 경험을 살려 전력을 다해 지원해 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 5차 고베시 기본계획'은 저출산·초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 여러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이 시대에 지진재해의 부흥 과정에서 빛을 발한 사람과

사람과의 유대를 살려 '사람'을 '보물'로 생각하고 새로운 중요로움을 협력하여 창조하는 "협창"의 이념에 의한 도시만들기를 이루어 가기 위한 목표로 많은 시민과 유식자 등의 참여를 얻어 책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기본계획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베시 행정장개혁 2015"를 아울러 책정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시민과 사업자의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실행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으로 매력 넘치는 고베의 도시를 함께 창조해 갑시다.

장래를 향한 고베만들기의 이야기.

먼저 2025년을 향한 고베만들기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갑시다.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시만들기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풍요로움이 창출됩니다.



Q 고베의 현 상황과 앞으로가 알고 싶어요!

A 고베의 현 상황과 장래에 직면하게 될 다양한 과제, 지침의 시점을 제시합니다.

→제 1화 3페이지로

Q 도시의 '형태'와 도시만들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침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의 모습과 '협동'과 '침묵'의 새로운 활동, 고베만들기를 지원하는 구조 등을 제시합니다.

→제 5~6화 7~8 페이지로

Q 우리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A 생활을 지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켜 장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도시의 매력을 높여가기 위한 정책을 제시합니다.

→제 2~4화 4~6 페이지로

Q 누가 앞으로의 고베를 만들어 가나요?

A 글로벌화에 대응하고 세계로부터 다양한 '사람'이 모여 교류하고 활약하는 미래의 고베만들기의 기분을 제시합니다.

→제 7화 · 에필로그 9~10 페이지로

고베의 현재, 그리고 미래.

2025년 고베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또, 어떻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베의 현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과 그 상황에서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개인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고베를 둘러싼 사회의 움직임을 정리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고베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시만들기의 방법과 고베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베를 둘러싼 과제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경제의 글로벌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	지방 역할의 중요성
향후 15년 사이에 65세 미만의 인구가 15만명 이상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10만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 전체의 인구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초월한 사람·물자·정보 등의 교류가 점점 더 활발해지는 가운데 산업구조도 변화하고 세계 경제의 동향이 우리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우리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비롯해 교통 등 도시의 구조, 산업의 위상에도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베시는 정형지정도시로써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배분되어진 재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만들기를 추진하는 '지역 주권' 이 실현 가능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보이는 것

고베의 도시의 힘을 유지하고 재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 태어날 아이와 시외로부터 이주하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킨다.
- 간사이 내 다른 도시와 협력하여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거대한 경제지역을 조성한다.
- 방재와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등.

앞으로의 고베만들기의 포인트

창조도시의 실현	시민·지역·광역 각각의 시점
사람의 창조력과 고베가 지닌 도시의 매력과 자원, 지진재해 부흥을 통해 얻은 경험 등을 살려서 "디자인" 으로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창조도시(디자인 도시)를 지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개개인이 지닌 능력을 발휘하고 서로 돕는다. ● 지역의 연계를 살린 도시만들기를 추진한다. ● 광역적으로 국내외로의 발진력을 높인다. 라는 3가지 시점에서 도시만들기를 추진합니다.

고베의 현 상황에서
고베만들기를 생각하면...

앞으로의 생활과 경제.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동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일하는 환경 등도 크게 변화되어 온 우리들의 생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빠른 속도로 저출산·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장래로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의 기초가 되는 복지과 건강, 고용, 산업진흥 등의 각 분야에서 생활을 지키는 것에서 비롯하여 경제를 발전 시키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갑시다.



먼저 생활을 지키고 경제를 발전 시킨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회를 조성한다	생활의 안전을 지킨다
고령과 장애, 빈곤 등으로 인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손쉽게 정보를 얻고 서로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지역 복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모든 사람을 감싸 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활습관병 예방과 의료체제의 강화 등,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주거에 관한 권을 겪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고 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도 실시합니다.

생활

일하기 편한 환경을 정비한다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육아와 가사, 취미활동 등의 생활과 일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생활에 밀접한 산업을 진흥시킨다

농어업에서는 도시 근교에 있는 입지를 활용한 '지산지소'를 추진합니다. 또한, 상업에서는 개인 점포의 매력을 높여 도시만들기와 하나가 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물건만들기를 중심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온난화 방지와 관련된 에너지 분야 등,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강화시킵니다. 또한, 기업과 대학이 연계함으로써 물건만들기의 기술을 높이는 것과 디자인과 서비스로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지원한다.

경제

관광교류와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도시의 매력을 살려 국제회의와 전시회, 기업의 여행지로 고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를 추진합니다. 또한, 교통의 편리함과 선진적인 프로젝트 등을 최대한으로 살려 기업의 거점 구축을 촉진시켜 갑시다.

미래를 향한 인재 양성.

고베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도시가 성장하는 힘을 키워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개인이 다르다는 것과 개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함과 동시에 차세대를 짊어질 아이들과 젊은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더 나아가 문화와 예술로 사람들의 감성과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최첨단 의료 등의 산업을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대학 등의 고등교육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이점을 살린 프로젝트 등으로 고베만이 이룰 수 있는 도시만들기를 추진해 나갑니다.

<p>개개인을 소중하게 여긴다</p> <p>개개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누구나가 사회에 활약할 수 있는 '유니버설 사회' 를 지향합니다.</p>	<p>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한다</p> <p>학교 교육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가정과 지역의 '양육의 힘' 의 향상을 지향하여 다양한 형태로 아이와 가정을 지원합니다.</p>	<p>고베의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한다</p> <p>고베다운 문화와 예술을 도시만들기에 반영시켜 '고베' 라는 브랜드로서의 도시의 힘을 더욱 더 고양시켜 갑니다.</p>	<p>'지혜의 집적' 을 살린다</p> <p>고도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과 그것과 관련 있는 분야의 기업을 지원하여 의료산업도시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슈퍼컴퓨터와 시대의 교육기관의 지혜와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p>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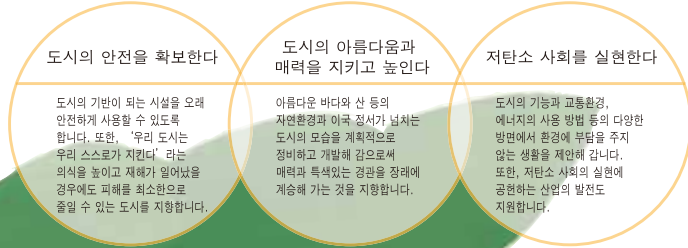
시 민 모두가 활약 할 수 있는 도시로.



방 재 는 문 화 한 질 도 보 다 더 쾌 적 하 게 해 간 다.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도시를 미래로.

생활과 기업 활동 등 일상생활을 안심하고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무대가 되는 도시가 앞으로도 존속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진재해로 터득한 지혜를 살린 방재와 재해 감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산과 바다 등을 지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지구 전체의 과제인 온난화 문제에도 대응한 도시만들기를 추진해 갑니다. 여러분도 함께 안전하고 자연이 풍부한 매력 넘치는 고베를 다음 세대에 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또 계속 계승해 갑시다.



고베를 지탱하는 도시만들기.

시민과 고베에 거점을 둔 사업자 등의 모든 활동의 무대가 되는 도시. 생활을 더욱 더 풍요롭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함은 물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 공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구축해 온 도시의 기반을 살려서 도시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킴과 동시에 도심부와 주위에 펼쳐지는 풍요로운 자연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또한, 시내의 지역별 특성을 한층 더 살려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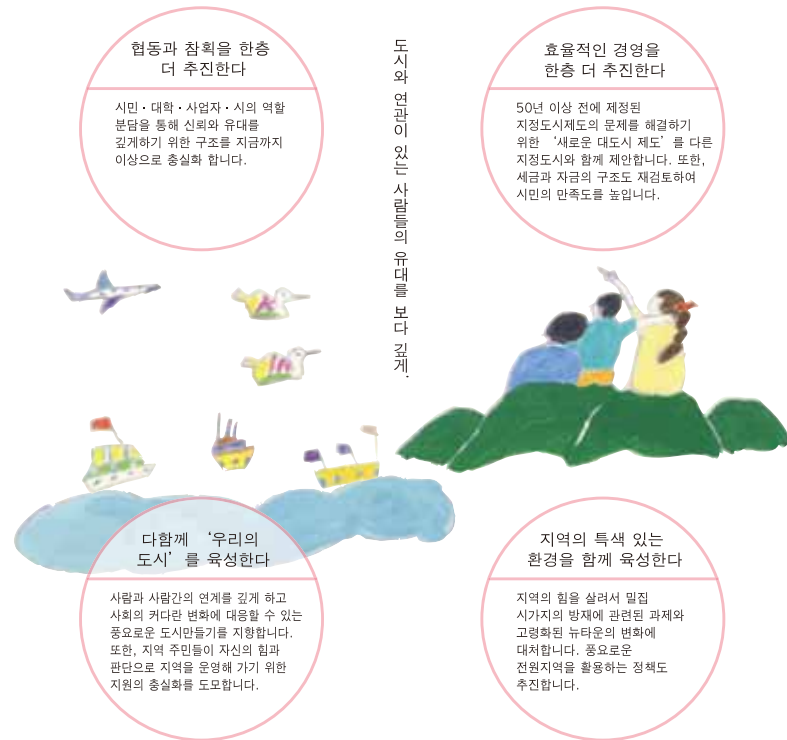
07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민·학·산과 행정에 의한 '협동과 참획'은 장래의 고베만들기를 향한 노력의 기본. 이것을 보다 더 좋은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자의 책임이나 역할을 모두 함께 생각하여 진원이 같은 의식을 지니고 행동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유대와 신뢰를 지금까지 이상으로 깊게하기 위한 구조를 형성해 갑니다. 또한, 시민 개인의 지혜와 힘을 더욱 더 살리기 위해서 지역 주체의 도시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와 구조를 정비하고 개성이 풍부한 지역만들기를 지원합니다.

08



고베, 세계 속에서.

옛부터 세계와 교류가 활발했던 고베. 앞으로도 국내외 세계에서 존재감 있는 도시로 존속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재가 모여 교류해 가면서 활약할 수 있는 무대로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처함과 동시에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살려 갑니다. 동시에 도시의 번성과 활력을 창출해 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계를 향해 매력을 발신할 수 있는 고베로! 여러분도 함께 힘을 합쳐 이루어 갑시다.

다양한 '사람' 이 모이고·교류하고·활약하는 도시로

'사람' 에 주목한 정책을 도시 전체가 힘을 합하여 추진하고 다양한 인재와 사업자 등이 '모이고·교류하고·활약하는' 도시만들기를 추진합니다.

활기차고 활력 넘치는 리더에리어를 형성한다

이하를 리더에리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도심·워터프린트:세계에 자랑할만한 '항구도시 고베' 로.
- 포트아일랜드:세계로 열린 미래 지향형 도시로.
- 효교 운하 주변:세계에 공헌하는 물건만들기의 도시로.

세계 속의 다양한 사람이 생생한 있게
활약할 수 있는 도시로



'사람' 이 주역이 되는 도시만들기.

풍요로운 자연과 이국 정서 넘치는 우리들의 고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창조해 내려는 정신과 전쟁피해나 수해, 한신·아와지 대지진 등의 고난을 서로 도우며 극복해 온 역사를 지닌 이 도시는 지금,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고베는 일본에서의 생활협동조합과 커뮤니티 활동의 선구가 된 곳입니다. 선인의 발자취를 이어 받아 이 도시의 모든 '사람' 을 앞으로의 고베만들기에 필수불가결한 '보물' 로 생각하고 누구나가 깊은 유대로 연결되어 빛나는 도시만들기를 추진해 갑니다. 모두 힘을 합하여 고베의 도시에 새로운 풍요로움과 가치를 창출해 갑시다!

모토는
"협창" !!



사람에 의해
세계는
살아나고
변해나
고
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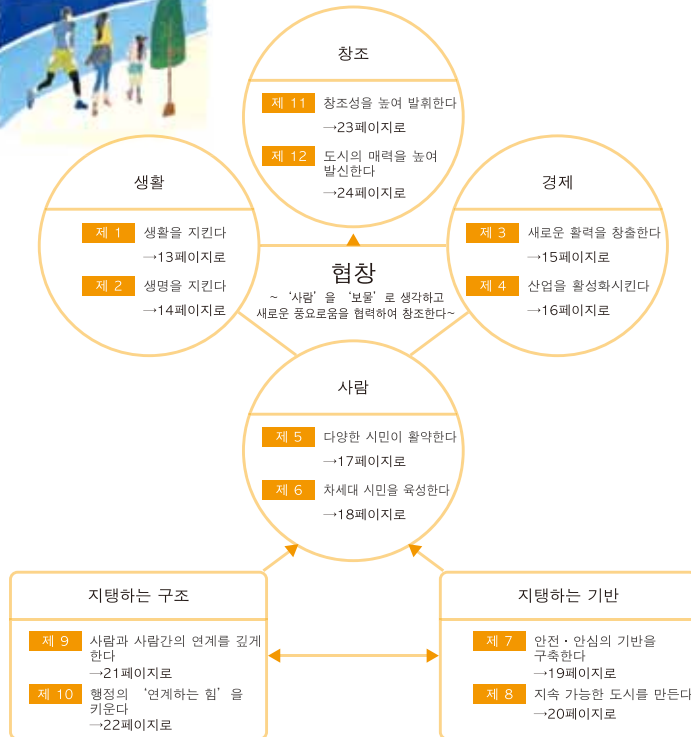
5년간에 실행할 사항

2~10페이지에서 설명한 고베만들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고베시에서는 2015년까지 실시할 구체적인 정책을 생각했습니다. 생명과 생활을 지키고 장래의 고베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 갑시다.



목표

생활과 경제를 향상시켜
새로운 가치와 매력을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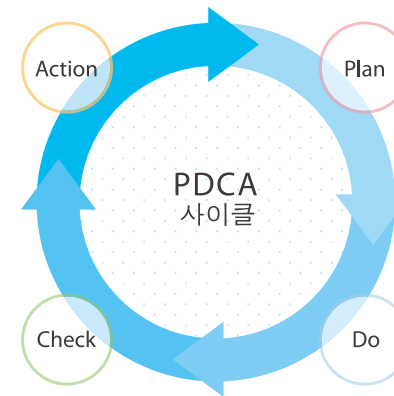
2015년 까지 실현시키기 위해 진행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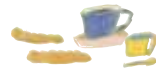
'고베 2015 비전'의 진행관리 주축은 "PDCA사이클"입니다. 이것은 계획(Plan)·실행(Do)·평가(Check)·개선(Action)이라는 사이클로써 이 사이클에 의해 고베 2015 비전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보다 좋은 형태로 실현하기 위해 검증·평가의 결과와 사회 경제의 동향과 변화를 기초로 필요한 재검토를 해 나갑니다. 시는 행정정 개혁과 인재 양성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대학 등·사업자도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계획을 실행합니다.

PDCA사이클이란?

계획(Plan)·실행(Do)·평가(Check)·개선(Action)의 4단계를 반복함으로써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



생활을 지킨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생활과 일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고베시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파악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을 지켜 나갑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안심을 제공하는 복지 구조를 정비하고 의료의 충실화를 도모하며 주거와 직장을 확보합니다. 서로에게 연관성이 있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누구나가 풍요롭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도록 합니다.



주요 사업

- '지역복지 네트워크(가칭)'의 활동 등을 통해 섬세한 지원이 가능한 지역 복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가까운 장소에서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으며 근란한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전문적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 2013년도까지 2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그 후 2년간에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한다.
- 발달장애인 상담창구와 취업추진센터를 늘려 장애인 지원과 취업지원의 네트워크를 충실하게 한다.

생명을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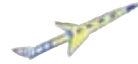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피해지였던 고베시. 그 때 우리들은 많은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사람간의 유대'의 소중함도 배웠습니다. 고베는 이러한 교훈을 살려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새로운 전염병의 대책이나 자살문제에 대한 대응 등,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 시민 개인의 생명을 지킵니다.



주요 사업

-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한다.
- 지진재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보존함과 동시에 지진재해의 교훈을 차세대에 전하고 국내외의 사람들에게 발신해 간다.
- '중양시민병원'과 '고베 어린이 초기 급병센터' 등을 중심으로 누구라도 안심할 수 있는 구급의료의 구조를 확립한다.
- '자살예방정보센터(가칭)' 등의 활동을 통해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새로운 활력을 창출한다



경제가 활기차게 성장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은 안정되고 보다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고베의 도시가 산업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갑니다. 의료와 저탄소 등 성장분야의 기업을 집적시키는 것 외에 시내 기업의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을 지원합니다. 또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바다·하늘·육지의 교통 네트워크를 재검토하고 그 기능을 강화시켜 한층 더 충실하게 합니다.



주요 사업

- 성장분야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중합 특구)을 조성하는 등, 의료와 저탄소 등 성장분야의 기업을 집적시켜 시민의 고용을 창출한다.
- 성장분야를 중심으로 한 창업과 시내 기업이 새로운 사업활동에 도전하는 것을 지원한다.
- 고베항과 오사카항이 일체가 된 '한신항'으로 입항하는 해외 컨테이너 화물량을 현재의 400만 TEU에서 490만TEU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항구 기능의 강화와 국제화를 추진한다.

- 비행기의 노선 네트워크의 충실, 기능의 강화와 룰의 개선 등으로 고베공항을 한층 더 이용하기 편리하게 한다.
- 중요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고 또, 유료도로를 손쉽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 요금의 구조를 재검토한다.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많은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특색을 살려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래 고베에는 제조업, 농업, 어업, 상업 등 지역에 뿌리를 내린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학과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 시키고 새로운 발상으로 가치를 더욱 더 높여 갑니다. 또한, 널리 어필함으로써 판매의 영역을 넓혀 갑니다.



주요 사업

- 시내에 있는 기업의 마케팅력을 향상시켜 국내·해외로의 판로를 넓혀가는 정책을 추진한다.
- 차세대 슈퍼컴퓨터의 이용과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시내 기업의 기술을 향상시켜 가치를 높인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 (지산지소)과 동시에 브랜드화 시킴으로써 가치를 높인다.
- 인터넷 등을 통해 소매점의 정보를 발신함과 동시에 도시형 상업의 매력을 높임으로써 활기 넘치는 상가·소매점을 지향한다.

다양한 시민이 활약한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누구나가 이용하기 편한 도시와 건물, 제품, 환경, 서비스 등 '유니버설 디자인(UD)'을 추진해 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이 각자의 능력을 살려 활약할 수 있는 도시만들기를 추진합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감성 풍부하게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이나 스포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합니다.



주요 사업

-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급함과 동시에 각 지역마다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한다.
- 모두가 각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고 활약할 수 있는 도시만들기를 추진한다.
- 문화예술을 참출하는 '인재양성'에 힘써 문화예술을 살린 '도시만들기'를 추진한다.
- 고베마라톤대회를 비롯한 커다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를 통해서 스포츠를 활성화 시킨다

차세대 시민을 육성한다



저출산이 진행됨과 동시에 가정과 지역에서의 교육력의 저하가 우려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베시에서는 임신·출산·육아에서 교육·아동학대의 문제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육중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여유롭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또한, 풍요로운 마음을 키우고 학교 교육의 충실화와 장애아에 대한 교육·교육의 충실을 기함으로써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는 도시로 만듭니다.



주요 사업

- 필요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육소의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 병중, 병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과 일시보육 등 다양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실현한다.
- (가칭) '고베크 응원단'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정·지역·학교가 하나가 되어 교육을 지원한다.
- '차세대 아동을 육성하는 시민회의' 등을 통해 사회 전체가 아동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사회의 물 등을 가르쳐 풍요로운 마음을 키운다.
-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 아동,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동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방재와 환경 등 고베다운 특색있는 교육을 추진한다.
-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를 가진 아동의 지원에 충실을 기한다.
-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소규모 그룹케어를 증가시키는 등 개별적인 케어에 더욱 더 힘을 기울인다.

안전 · 안심의 기반을 구축한다.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와 거주지를 비롯한 여러 건물의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낡은 주택이 밀집된 시가지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지역 등 방재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의 안전성을 높이는 활동을 추진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다리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오래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한 계획적인 유지·보수·갱신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

- 초·중·학교 · 유치원 · 특별지원학교 ·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사업의 추진을 지향한다.
- 도시 시설의 내진을 보강하는 사업을 거주지 (86%→95%), 다리(총 92개) 등으로 추진한다.
- 밀집 시가지를 방재면에서 개선하고 또 침수에 강한 도시만들기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 다리와 상하수도, 공원 등 낙후된 공공시설을 앞으로도 오래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유지·보수·갱신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



고베시는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여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혜택을 차세대에 남기기 위해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저탄소사회, 자연공생사회, 순환형 사회를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뭣코산계에 대해서는 모두가 협력하여 지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관과 그 곳에 생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풍요로운 녹음이 지닌 보수력을 지키는 것이 방재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

- '뭣코산 산림정비 전략'에 기초하여 뭣코산의 자연을 지키고 키워가기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소중한 물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물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또한, 강과 그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여 물과 녹음으로 가득한 도시만들기를 실시한다.
- 태양광과 바이오가스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를 도입하여 저탄소도시를 지향한다.
- 차세대 자동차(전기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나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이용을 확대한다.
- 용기포장 플라스틱의 분별 회수와 '종이 쓰레기'의 자원화 등에 고베시 전체가 힘을 모아 쓰레기 처리량을 줄여 가도록 한다.
- 고베시 전체가 에코타운 도시 조성 방안을 추진한다. 에코타운을 현재의 93지구에서 128지구로 늘리고 2020년까지 전 초등학교 학구로 확대시킨다.

사람과 사람간의 연계를 깊게 한다



저출산·초고령화가 진행되는 등 사회경제의 상황은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베는 지진재해로 인해 생겨난 지역의 사람과 사람간의 연계를 더욱 더 깊게함으로써 시민의 이해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개성이 풍부하고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활동이 원활하게 연결되어 각 지역의 운영을 각자의 힘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서포트의 충실을 도모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회적 기업'도 육성해 갑니다.



주요 사업

- 파트너십 협정을 3개 지구에서 9개 지구로 확대한다. 또한, 협동의 도시만들기를 추진하는 '구의 플랫폼'을 4개 구에서 전 구로 확대한다.
- 시민이 안전·안심·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한 '우리 도시의 공간구상' 조성 방안을 2015년까지 10개 지구로 확대한다.
-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 그 기업을 서포트하는 구조를 만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행정의 '연계하는 힘'을 키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의 홍보·홍청 업무에 한층 더 충실을 기합니다. 시민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알기 쉬운 정보 제공을 염두에 두고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간사이의 4개 정령지정도시간의 연계를 깊게하는 등 주변의 시정촌과 협력하고 간사이 전체를 활성화시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동시에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유네스코의 창조도시 네트워크 등의 유대관계를 활용하여 세계를 향한 고베의 매력을 어필합니다.



주요 사업

- '고베시 종합콜센터' '시민의 목소리 집약 활용시스템'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널리 수렴하는 구조의 충실을 도모한다.
- 시의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친숙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보를 전하는 능력을 키운다.
- 주민 서비스 디렉터를 전 구에 배치하여 정성어린 주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간사이 4개 도시 시장회의를 통한 4개 도시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더 나아가 '간사이 광역연합'과의 연계도 강화시킨다.

창조성을 높여 발휘한다

각 도시가 다양한 매력을 발하는 가운데 고베다운 특징을 살린 '디자인 도시'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합니다. 성장을 계속하는 창조도시를 지향함으로써 국내외 해외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활약하는 도시로 될 것입니다. 또한, 고베 의료산업도시 구상을 추진시켜감과 동시에 차세대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 대학과의 협력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베의 강점인 '지혜의 집적' 을 가속시킵니다.



주요 사업

- '(가칭)디자인·크리에이티브센터 KOBÉ' 를 중심으로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고 모른다. 등록자 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 아시아 NO.1의 바이오메디칼클러스터를 지향하여 전문병원을 집적시킴으로써 고도의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개발도 추진한다.
- 차세대 슈퍼컴퓨터 이용을 확대시킴으로써 많은 대학과 연구소 등을 집적시켜 방재 등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는데 활용한다.

도시의 매력을 높여 발신한다

고베의 매력적인 거리 풍경과 환경을 지키고 육성해 갑니다. 자연·라이프 스타일이 펼쳐내는 고베다운 관광자원을 갖고 닦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대' 에 충실을 기합니다. 또한, '디자인 도시' 의 형태를 만드는 지역이 되는 도심·위터프런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첨단기술의 중심지이고 풍부한 역사를 지닌 효고 운하 주변의 매력을 널리 어필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매력을 발신하는 도시 고베에 대한 애착도 깊어질 것입니다.



주요 사업

- 매력적인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스콧(뷰포인트)의 15곳을 정비하는 등 고베의 매력적인 경관을 지키고 가꾼다.
- 관광자원을 살리고 또,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유치하는 활동을 통해서 관광객을 늘린다. 외국인 여행자 수를 현재의 44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린다.
- 산노미야역 주변의 대개조와 신항구 제 1 제방·메리켄파크 주변의 재개발 등으로 도심·위터프런트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인다.
- 역사적 자원과 산업경관 등을 살려서 효고 운하 주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널리 어필한다.

각 구의 활동

시내 9개의 구에서도 각 구의 '구민 도시만들기 회의'가 중심이 되어 구민과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각각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구가 꿈꾸는 미래상과 2015년도까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합니다.

'니시구'

아름다운 도시 니시구 새로운 진원도시를 지향하여

농산물의 지산지소를 추진하는 것 외에 자연체험 등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추진합니다. 또한, 구 내의 기업과 주민, 행정의 힘을 합쳐서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스마구'

지역의 힘과 정열이 넘치는 살기 편한 도시 -스마-

방법과 방재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을 젊어질 청소년을 육성합니다. 또한, 스마의 매력을 발신하고 즐길 수 있는 구조도 만듭니다.

'효고구'

친절함과 배려심의 도시 효고

관계자와 지역이 힘을 합하여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 보고 양육해 갑니다. 또한, 구의 매력과 활력을 구 전체가 활용·공유할 수 있도록 구의 남북교류의 "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주오구'

사는 매력, 모이는 매력, 다양한 개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 주오구

계속 살고 싶어지는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또한, 도시 기능이 집적된 구의 특징을 살려 활기가 넘치는 고베를 창출해 갑니다.

'기타구'

사람이 모이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매력 넘치는 녹음과 온천의 마을

아리마온천이나 역사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게 함으로써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구 내의 이동수단 확보도 추진합니다.

'다루미구'

살고 싶고 계속 살고 싶은 도시 다루미

지역 활동을 한층 더 활발하게 해 갑고 동시에 6개의 "생활문화권" 별로 목표를 정함으로써 모두가 생기 넘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만들기를 추진합니다.

'나가타구'

세계에 자랑하자! 음식과 철인 '굿' 한 도시 나가타

음식과 역사 등 독자적인 문화를 비롯하여 매력을 발신합니다. 세대를 뛰어 넘은 교류를 통해 사는 사람들에게 즐겁고 안락한 도시를 지향합니다.

'히가시나다구'

매력이 넘치고 교류의 바람이 부는 도시 '고향의 도시·히가시나다'

아이를 안심하고 출산,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갑니다. 또한, 도시를 볼 기회를 늘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지키고 서로 협력합니다.

'나다구'

풍요로운 자연과 웃음꽃이 피는 계속 살고 싶은 도시

도시만들기의 인재를 발굴해 육성함과 동시에 사업자와 대학, 학생, NPO 등이 힘을 합하여 살기 편하고 활기찬 도시를 조성합니다.

행정정 개혁의 노력

행정정의 개혁은 앞으로의 고베 만들기를 지탱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개혁의 발자취와 앞으로 예상되는 과제, '고베시 행정정 개혁 2015'의 5가지 목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나요?

고베의 도시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어 그 복구·부흥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생활과 안전·안심을 지킨다'라는 행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진의 피해를 입은 직후부터 구체적인 계획에 기초한 행정정 개혁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직원 총 정원수를 약 5,500명 삭감하고 실질 시체무 잔액도 2004년도 이후에 약 6,000억엔 삭감해 왔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을 체크하고 재검토함과 동시에 민간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한편 명명권(스포츠 시설 등의 명칭을 붙이는 권리)의 도입 등, 새로운 자원 확보에도 매진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정 개혁으로 약 2,900억엔의 재원을 창출하여 재정상황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 시 체무 잔액의 삭감

약 6,000억엔
(2003년도 잔액의 약 40%에 상당)

직원 총 정원수의 삭감

약 5,500명
(지진재해시의 약 1/4에 상당)

사업의 재검토

민간활력의 도입

행정정 개혁으로 시민 서비스도 향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 개혁을 실시하는 것으로 창출된 자금으로 시민 서비스의 유지는 물론 각종 서비스의 향상 등을 도모해 왔습니다. 보육소의 입소 정원의 확대와 특별 양호노인홈의 정원확대, 초중학교의 건물의 내진화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불황이 계속되는 중에 시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고용의 확보와 고베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에 최우선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구청 창구의 접수 시간을 연장하고 시민의 문의에 전화 한 통으로 대응하는 '종합 콜센터'도 개설했습니다.



보육소의 입소 정원을 확대

양육 중의 아버지·어머니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입소 가능한 정원을 늘렸습니다.

2003년도 18,860명 → 2010년도(예산) 22,227명

특별 양호노인홈의 정원을 확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양호노인홈의 정원을 확대했습니다.

2003년도 4,135명 → 2010년도(예산) 4,938명

초중학교 건물의 내진화를 촉진

재해에 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초중학교 건물의 내진화를 추진했습니다.

2003년도 39% → 2010년도(예산) 92%

아동의 의료서비스를 충실

입원 의료비의 전액 조성을 중학교 수료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고베 어린이 초기 급병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정 개혁

시대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개혁의 노력을 삼켜버릴듯이 급격합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초고령화, 글로벌화의 진행 그리고 장래가 불투명한 일본경제의 동향 등을 감안해 볼 때 자치체를 둘러싼 환경은 한층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베시에서도 앞으로의 시의 세금 수입과 지방 교부세의 동향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비와 의료비가 앞으로도 확실하게 증가해 갈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일반 회계의 단년도 수입 부족이 약 180억엔, 누적수지 부족이 약 610억엔으로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행정은 정말로 필요한 시민 서비스를 잘라내 걸쳐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제 5차 고베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앞으로의 고베만들기를 지탱해 가기 위한 정책을 확실히 추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베시 행정정 개혁 2015’를 제정했습니다.

새로이 2011년도부터 5년간의 행정정 개혁의 계획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계획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동시에

지역 주권 개혁의 추진으로 나라·현·시의 역할분담의 명확화와 그것에 상응하는 세균 재원의 확보가 실현되도록 호소해 가겠습니다.



‘고베시 행정정 개혁 2015’ 2011년~2015년도의 5가지 목표

① 시가 지니고 있는 시설과 설비, 사람 등 모든 재산을 유용하게 활용해 갑니다

일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고 한정된 인원을 유용하게 활용해 갑니다. 또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설비에 적절한 보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래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시의 사업을 재검토 하여 최적화를 지향합니다.

지금까지 시가 주체가 되어 실시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도 민간의 힘을 더욱 더 활용해 갑니다. 또한, 보육소, 유치원, 학교, 해외 사무소 등을 재편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 갑니다.

③ 시의 관련 기업이나 단체의 경영을 개혁합니다.

시의 지원 방법과 보조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고 외곽단체는 10개 단체 이상의 삭감, 시로부터의 파견 직원은 30% 이상 삭감하도록 합니다.

④ 시민의 입장에 서서 재검토 하고 투명한 행정을 지향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알기 쉬운 정보발신에 힘씁니다. 시의 사업에 대해서 계획·실행·평가·개선의 4개의 흐름(PDCA 사이클)으로 수시로 체크해 갑니다.

⑤ 캠퍼트하고 활력 넘치는 시청으로 만듭니다.

2010년도의 직원 총 정원수 16,164 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약 1,600 명을 삭감합니다. 또한, 직원의 의욕을 고양시켜 적은 인원으로도 활력 넘치는 시청을 실현합니다.

